

일계인 디아스포라의 모국 브라질과의 사회경제적 관계 고찰*

임 영 언** · 김 태 영***

(e-mail: yimye@hanmail.net · taeyoung@gwnu.ac.kr)

目次

- I. 연구 목적
 - II. 기존연구 및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및 조사대상
 - IV. 일본거주 일계인의 브라질과의 사회경제적 관계 분석
 - V. 결론 및 시사점
-

I. 연구 목적

일본과 브라질의 관계는 1895년 11월에 체결된 ‘일본-브라질 수호통상항해조약(日-伯修好通商航海條約)’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일본과 브라질은 상호 이민정책을 통한 외교관계를 지속해왔으며 점차 일본으로부터 브라질로 진출하는 일본기업이 많아지게 되면서 실질적인 지리적인 거리감은 ‘멀지만 양국의 사회적 관계는 가까운 나라’라고 불릴 정도로 외교관계를 돈독히 유지해 왔다.

일본인의 브라질 이민은 공식적으로 1908년 일본 배인 카사토마루(笠戸丸)가 브라질 산토스항에 도착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일본경제는 불황에 허덕이고 있었으며 농촌경제는 특히 피폐한 상황이었다. 이로 인해 일본농촌

*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0-413-2013S1A5B8A01055017).

**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원 연구교수(제1저자).

*** 강릉원주대학교 인문대학 일본학과 교수(교신저자).

의 빈곤이 심화되어 일본정부는 농촌 빈곤의 해결책으로서 새로운 이주지를 찾게 되었다. 일본정부가 브라질로 이주지를 선택하고 농촌 출신의 이민희망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브라질에서 일본인 노동자의 특별대우와 고임금을 요구하여 브라질 정부가 이를 수용했기 때문에 이민자들 대부분은 단기간 브라질 커피농장에서 계약노동자로 일하며 많은 돈을 모아 귀국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브라질 이주지에서의 일본인 이민노동자의 실상은 현실과는 크게 달랐다. 당시 브라질 정부는 노예해방령에 따른 노동력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량 수용한 것으로 일본인노동자들은 법적 지위에서 자유로운 시민에 속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예생활과 다를 바 없었다.

일본인들은 이주지에서의 힘든 노동생활 때문에 커피농장에서 이탈하는 자들이 점차 많이 생겨났다. 이들 중에는 농지를 취득하여 자작농을 선택하거나 이민자들끼리 자금을 공동으로 모아 '식민지'라는 집단 입식지 및 농업협동조합을 형성하기도 했다. 이후 많은 일본인 이민노동자들이 자작농으로 독립하여 일부는 커피농장으로 성공하기도 했지만 대부분 커피가격의 폭락으로 또 다시 목화농장이나 후추재배, 녹차재배나 감자농업의 노동자로 전락하였다. 일본인 이민자 일부는 상파울로를 중심으로 일본인 이민자를 대상으로 각종 잡화점을 개업하거나 제조공장이나 의사로 창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출현하였다.

일본과 브라질 간의 이민은 한때 제2차세계대전의 여파로 일시적으로 중단되고 외교관계도 거의 전무한 상태였다. 그러나 1950년대 초 일본과 브라질 간의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일본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민정책을 중단하기 전까지 브라질 정부의 일본인 노동자의 수용은 지속되었다. 이러한 일본인의 브라질 이민열기의 여파로 현재 브라질에는 약 150만 명의 일계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은 브라질에서 일계인 사회의 최대 집거지를 형성하여 일본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가장 큰 집거지 중의 하나인 일계인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브라질에서 일본인 최대 집거지는 브라질 상파울로 중심부 리베루다지(평등)라는 일본인타운이다. 상파울로에 최초 일본인 이민노동자들이 과거 일본 영화관으로 사용했던 리베루다지 주변에 거주한 역사적 경험을 계기로 이곳에 일본인타운을 형성하게 되었다. 현재 리베루다지는 중국이나 한국으로부터 몰려온 이민자들로 동북아시아로부터 이주한 동양인 이민자들의 타운으로 불리고 있다.

브라질에서 일계인의 정의는 일본으로부터 브라질로 건너간 일본인 후손들을 지칭하며 이민 100여년 지난 지금 일계인들은 일계인4-6세대를 형성하고 있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일계인 거주국으로 1908년부터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브라질정부의 이민정책이 시행된 후 2008년에는 약 150만 명의 일계

인공동체 사회를 형성하였다. 1950년 이후 브라질에서 태어나 브라질인으로 서 민족정체성을 가진 일계인들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직업에 진출하는 등 일계브라질인들의 직업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브라질은 1980년대 이후 세계 여러 나라의 채무국으로 전락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일본은 고도경제성장을 달성하여 아시아 최대의 경제대국으로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해 왔다. 일본 경제의 부상과 노동력 부족으로 1989년 일본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면서 1990년 일계인에 대한 출입국정책이 대폭 완화되어 브라질 출신 일계인 노동자들이 일본으로 대거 이주하는 돈벌이 노동이민(出稼客)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일본 출입국관리국에 의하면 2013년도 말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206만 6,445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1.6%정도 증가하여 일본 총인구 1억 2,729만 명 중 1.62%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지역이 167만 6,343명으로 81.1%, 남미지역(브라질, 페루 등)이 24만 3,246명으로 11.8%를 차지하여 체류외국인 전체 92.9%가 아시아 및 남미지역 출신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역별 체류외국인의 체류자격의 특징을 살펴보면 영주자(영주자 및 특별영주자)가 82만 9,57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유학생'과 '기능실습생'이었다. 또한 남미지역(브라질, 페루 등) 출신자의 경우 전체 체류자에서 영주자가 15만 3,17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일본 체류외국인들은 남미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증가세를 보여 특히 아프리카 지역이 6.1%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반면 남미지역은 일본에서 체류외국인의 감소 비율이 3.9%(9,9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적별 체류자를 살펴보면 중국이 64만 9,078명으로 전체에서 31.4%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한국·조선이 51만 9,740명으로 25.2%였다. 계속해서 필리핀이 20만 9,183명으로 10.1%, 브라질이 18만 1,317명으로 8.8% 순이었다. 일본 내 체류외국인의 특성은 지역별로는 동경도가 40만 7,067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오사카 부, 아이치 현, 가나가와 현, 사이다마 현 순으로 지리적 집중을 보였다. 이들 일계인들은 일본 귀환이후 브라질에서는 일본인으로, 일본에서는 브라질인으로 불리는 경향이 있어 민족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일본에 체류하는 일계인은 2007년 전후 32만 명에 달한 적도 있지만 2008년 리먼쇼크 이후 일본 국내 불경기에 따른 구조조정으로 약 10만 명 정도가 브라질로 귀국하였으며 그 후 브라질 귀국자가 계속 증가해 왔다. 2015년 현재 일본에 거주하는 일계인들은 약 18만 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거주 일계인들 중 아이치 현에 거주하는 일계인을 대

상으로 그들의 민족정체성에 따라 브라질 모국과의 사회경제적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통해 고찰하는데 있다. 특히 이 연구는 1990년대 이후 일본에 거주하기 시작한 일계인을 대상으로 그들이 모국 브라질과의 사회경제적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를 고찰하여 다문화 사회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II. 기존연구 및 이론적 배경

일본인의 해외이주에 관한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일본인 이주의 역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임성모(2008)의 연구, 이민정책적인 측면에서 송석원(200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를 참고로 일본인의 이주배경과 역사를 살펴보면, 남미이주는 1899년 페루이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일본인의 경제생활은 빈곤했고 특히 농촌지역경제가 피폐하여 일본정부는 경제적으로 궁핍한 농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이민을 장려했다. 일본정부가 농민대상의 이민을 추진한 배경에는 '부국강병'과 '식산흥업'의 이데올로기가 숨겨져 있다. 당시 일본정부는 풍부한 노동력 공급과 부국강병의 기반이 되는 다산 장려정책을 실시하여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일본인의 해외이주정책은 농촌경제의 피폐와 인구증가라는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다.

일본인들이 중남미로 이주하는 최초 이민선인 사쿠라마루는 1899년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된 4년간의 계약노동자 790명을 태우고 페루로 향했다. 제1차 페루이민은 니가타 현 농촌 출신 농부들이 과반수를 차지하였다. 1908년에는 다시 카사토마루로 791명이 브라질 산토스항으로 향했다. 그 이유는 당시 페루와 브라질정부가 노예제 폐지로 인해 노동력 부족으로 대체노동력을 해외 이민자들로 채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여 남미 브라질 커피농장의 노동력으로 진출한 일계인 노동자들은 나중에 농지를 버리고 대도시로 진출하여 목수나 상업, 이발업 등으로 생계를 이어나갔다.

일본인 이민노동자들은 원래 돈벌이 노동을 목적으로 브라질로 이주했기 때문에 현지 주민과의 접촉이 적었다. 반대로 이주지에서 일본인 간의 연대와 결속으로 '일본인 마을(타운)'을 건설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어졌다. 결국 이러한 일본인의 폐쇄성은 현지 거주민의 반감을 사게 되었고 나중에는 일본인 배척운동으로 번지기도 했다.

브라질에서는 1923년경 외국인노동자 수요가 급감하여 일본인 계약이민은 친족 중심의 초청이민 이외에는 금지되었다. 1924년에는 미국에서 제정된 '배

일이민법'으로 하와이정부가 일본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배일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새로운 이주지를 찾아 남미로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1929년에는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일본 경제가 휘청하자 일본인의 남미 이주는 본격화되었다. 제2차세계대전 중에는 브라질이 연합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 이민자의 수용은 잠정 중단되었다. 1945년 태평양전쟁 이후인 1953년부터 브라질 정부는 일본인 이민자의 수용을 재개했다. 1945년부터 1957년까지 브라질에 체류하는 일계인은 약 2만 명 정도였다.¹⁾ 이와 같이 일본인의 남미이민은 처음에는 돈벌이 이민노동자로 시작되어 나중에는 사회경제적 이유로 차츰 브라질 현지사회에 정착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브라질에 거주하던 일계인 노동자의 일본 귀환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990년대 이후 일계인들이 일본으로 귀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남미일계인의 귀환에 관한 기존연구들은 대표적으로 임채완외(2013), 임영언외(2014, 2015)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1980년대 후반 남미 전체를 강타한 경제위기로 많은 남미브라질인들이 해외이민, 특히 일본을 이민지로 선택하게 되었다. 남미 경제위기와 브라질의 인플레이션상으로 이민노동자들이 해외로 이주하기 시작했는데 일계인들 역시 글로벌 이주대열에 포함되었다. 일계인들이 브라질에서 일본으로 본격적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전반이며 1945년 이후 브라질로 이민간 일계인 1세대들이 귀국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²⁾

일계인의 일본이주 당시 일본경제는 버블경제가 한창이었고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부족으로 먼저 기업에서 이민노동자의 수용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1990년 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일계인 3세와 그 배우자에게 활동제한이 없는 '정주자'라는 '신분 또는 지위에 의한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이민정책의 제도적 개정이 일계인들의 일본유입을 촉발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 1990년 출입국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일본에 거주하는 일계인들이 급증하였는데 이때 처음으로 '일계인'이라는 틀과 개념이 완성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일본에 입국하여 체류가 가능한 일본인 후손은 일계인 3세까지였으며 동반 가능한 가족은 일계인 3세의 배우자와 미성년의 친자녀만 해당되었다. 또한 일계인 4세 이상에 대해서는 취업을 포함한 일본에서의 활동을 제한하였다.

그러면 일계인이란 무엇인지 간단히 개념을 정의하고자 한다. 해외일계인협

1) 吉田忠雄(2006) 『南米日系移民の軌跡』人間の科学社.

2) 梶田孝道·丹野清人·樋口直人(2005) 『顔の見えない定住化—日系ブラジル人と国家・市場・移民ネットワーク』名古屋大学出版会.

회는 일제인에 대하여 “일본으로 본거지를 해외로 옮기고 영주목적 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는 일본인 및 그 자손 2세-4세 등으로 국적과 혼혈을 불문하고 일제인이나 일제인사회에 계보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³⁾ 또한 마에야마(前山, 2001)는 일제인의 정의에 대하여 “원래 일제인을 한마 디로 정의한다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지만, 일제인이란 일본인의 피를 이어받 은 사람이다. 일본인 간의 결혼으로 현지 태생의 자녀는 당연히 일제인이라 할 수 있다.”⁴⁾ 그러나 세키구치(關口, 2003)에 따르면 일제인을 둘러싼 정의 는 ‘피의 논리’와 ‘장소의 논리’가 혼재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1990 년대 일본의 입국관리법 개정이 ‘재일한국인 3세’를 ‘일본인’에 가깝다는 의미 에서 ‘특별영주권’을 인정하여 ‘혈통주의’라는 ‘피의 논리’의 관점에서 일본인의 피를 이어받은 일제인에게도 동등의 권리를 신설하여 부여했다고 주장하고 있 다.

이 시기부터 일본정부는 일제인 3세까지를 ‘일본인에 가까운 존재’라고 경계 선을 그어 일제인 4세 이상은 ‘외국인에 가까운 존재’라고 정의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일본정부에 의한 일제인의 경계선에는 혈통을 중시하는 ‘피의 논리’, 출생지나 거주를 중시하는 ‘장소의 논리’가 혼재하고 있다는 사실 을 간파할 수 있다.⁵⁾ 현재 일본정부는 국적취득에 있어 전통적인 혈통주의를 고수하고 있고 브라질은 태어난 장소의 국적을 부여하는 출생지주의(속지주 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에서 태어난 일본인 자녀들은 일본과 브 라질 국적을 동시에 취득할 수 있다. 브라질 거주 일제인들은 자녀가 태어나 면 양쪽 국가기관에 신고만 하면 이중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 서는 20세가 되면 한 개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제인들의 민족정체성은 일본에서는 브라질인으로, 브라 질에서는 일본인 취급을 당하면서 양쪽 국가에서 생활전략도 다양하게 나타나 고 있다. 구로다 요코(黒田陽子, 2007)는 이러한 일제인의 민족정체성을 극 복하기 위한 생활전략을 6개의 이념형(Ideal Type)으로 분류하였다. 그는 논 문에서 일제인을 거주형태별로 ‘정주형’, ‘단기 체류형’, ‘장기 체류형’으로 분류 하고 거주지향별로 ‘돈벌이 지향’, ‘귀국지향’, ‘영주지향’으로 구분하였다.⁶⁾ 이 렇게 일제인들은 초기 돈벌이 이민목적이 일본에서 생활이 장기화되면서 다양

3) 財団法人海外日系教会, <http://jadesas.or.jp>(검색일: 2015년 5월 21일)

4) 前山隆(2001) 『異文化接触とアイデンティティ』お茶の水書房.

5) 関口知子(2003) 『在日日系ブラジル人のこどもたち』明石書店.

6) 黒田陽子(2007) 「フィールドワークによる日系人の生活戦略分析—人間関係と言語習得から見る支援の一つの可能性—」 『生態人類学会』No.14, pp.2-3. 이 논문에서 생활전략이라 함은 일본에서 일제인의 거주유형과 생활지향에 따른 전략으로 대략 3년을 기준으로 생활전략을 세웠다. 그 이유는 일제인 노동자들이 우선 일본에서 3년 체류라는 목표를 세웠기 때문이다.

한 생활경험을 바탕으로 그들의 거주 지향성도 바뀌어 왔다. 이렇게 볼 때 일계인의 일본생활은 과거, 현재, 미래의 경험을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그들의 거주형태와 지향성은 현실적인 요소가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글로벌화 이후 일계인의 이주배경의 가장 큰 이유는 1980년대부터 1992년까지 지속된 일본경제의 버블로 단순노동의 현장에서는 만성적인 노동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나 반대로 당시 150만 명의 일계인들이 거주하고 있던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국가들은 경제적 불황이 지속되고 있었다. 일본 내 기업들은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대체 가능한 단순노동자로서 동족인 일계인들을 선호하였다. 이러한 국가와 기업의 이해관계로 일본으로 이주한 일계인들이 2007년 세계적인 경제위기였던 리먼쇼크 이전까지 32만 명에 달했다.

그 후 일본에서 일계인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여 왔다. 주된 이유는 1992년 버블붕괴 이후 일본기업들의 대량 해고, 시급하락과 산업의 감소 등으로 노동조건이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본기업의 고용패턴도 크게 변화하였다. 일본기업들은 정규고용보다는 아웃소싱을 늘리고 하청업체들도 노동력의 아웃소싱을 수용하는 부문에서 성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노동력의 단가가 높은 자동차공업이나 전기산업의 하청만을 받아들였던 일계인 노동자 알선업자들이 단가가 낮은 식품분야까지 업종을 개척하여 일계인의 노동시장을 일시적으로 확대시켰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계인 노동자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증가하여 일계인의 일본 체류가 한편으로는 장기화될 수 있는 요인을 제공하였다. 1990년대 초기 일계인들은 일본에서 1-2년 노동하여 돈벌이를 마치면 바로 귀국할 예정이었지만 버블경기가 붕괴되고 수입이 불안정해지자 체류기간을 5-6년 연장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일계인들의 일본체류가 장기화되면서 정주 지향이 강한 일계인 노동자들이 일계인 대상의 에스닉 비즈니스를 창업하였다.⁷⁾

일계인 대상의 에스닉 비즈니스는 처음에는 일본인 주인이 일계인을 상대로 영업을 시작했지만 곧 브라질 노동자들이 공장노동으로 저축한 자금을 가지고 창업하는 경우도 생겨났다. 그리고 일계인들이 에스닉 비즈니스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들 일계인 자영업자들은 브라질로부터 직접 상품을 수입하였으며 그 결과 일계인의 에스닉 경제는 일본 경제와 분리된 상태에서 경영이 가능한 자기완성의 비즈니스를 달성할 수 있게 되었다.

7) 이 논문에서는 브라질에서 일본으로 이주한 일계인들이 창업한 자영업 수준의 가게를 지칭한다. 대부분 종업원이 10명 이하이고 가족경영이 많은 소규모 가게를 말한다.

이상과 같이 일계인 노동자들은 일본경제의 불안정에 따라 본래 이주목적이었던 돈벌이 목적을 위해 단가가 높은 노동에서 낮은 노동으로 이동하면서 제한된 업종이지만 일자리 증가에 따라 일시적으로나마 일본체류를 장기화하는 이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일계인의 정주지향은 에스닉 비즈니스의 출현으로 브라질 모국과의 상품거래를 촉진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마에야마(前山, 2003)에 의하면 이러한 일계인의 브라질과의 사회경제적 관계는 일계인의 민족정체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일계인의 민족정체성은 브라질의 다인종적인 특징과 일상적이고 직접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되어 온 것으로 주장한다. 즉 일계인 이민노동자들이 형성한 민족정체성은 일본으로부터 배양된 일본인 의식의 연장선이나 계속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브라질에서 일계인의 민족정체성은 일본인으로 취급되는 사회적 상황과 맞물려 있으며 일본에서의 국가적 민족정체성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형태이다.

일계인의 민족정체성에 대하여 왜 이런 주장이 가능한가? 그 이유는 브라질에서 태평양 전쟁에 의한 국교단절, 배일운동 경험으로 인하여 일계인 2세들의 민족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대폭 수정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일계인들은 민족정체성 형성과정에서 브라질과 일본이라는 양측의 민족주의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 때문에 일계인 2세들은 일본정신을 가진 브라질 시민과 브라질 정신을 가진 완전한 브라질 시민 사이에서 분리와 동화의 과도기에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일계인 1세와 2세의 차이에 대하여 2세 이후의 일계인들은 급속히 브라질인으로 동화되는 경향이 있고 일본인으로서의 귀속의식도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따라서 일계인 2세 이후의 민족정체성은 일본인이냐 일계인이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특정 국가나 민족이라는 개념에 의해 결정되기 어려운 것이 2세 이후의 민족정체성이다.

이상과 같은 일계인의 민족정체성은 일본정부가 일계인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에 따라 일본인과 브라질인으로 갈리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계인들이 일본에서의 차별과 배제경험으로 점차 브라질을 모국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하고 있다.⁸⁾ 이러한 브라질 중심의 일계인 민족정체성의 형성은 일본사회의 공생과 통합이라는 다문화정책 시행과정에서 모국 브라질과의 사회적 경제적 관계 구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의 차별성은 일계인들이 일본과 브라질 중 어느 쪽의 민족정체성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들의 사회경제적 관계 구축에도 영향을 미칠

8)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임영연외(2014) 「일계인의 일본 정착과정에서 나타난 차별의식과 차별유형에 관한 고찰」 『日本文化研究』第52輯, pp.433-454 참조.

수 있다는 가설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 다음 장에서는 일계인의 민족정체성에 따른 브라질과의 사회적 경제적 관계에 초점을 두고 설문조사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및 조사대상

이 연구의 통계자료는 2013년 2월부터 5월까지 실시된 일본 현지조사 자료에 근거하고 있다. 일본 아이치 현 나고야 시 9번 단지 및 오수지역에 거주하는 일계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 지역은 일계인들이 집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는 곳으로 약 2,000명 정도의 일계인들이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설문조사결과 총 100부 수집되어 논문의 분석에 활용하였다. 나고야 시 9번 단지는 1975년 3월부터 일계인의 주택입주가 시작되었다. 원래 9번 단지는 도시주택과 아이치 현 운영주택 및 분양주택으로 구성된 신흥주택지였다. 일본도시공단이 기업에 임대나 사원 일가족에게 임대를 개시한 1980년대부터 일계인의 입주가 시작되었다. 이곳은 이른 아침 7시부터 공장으로 향하는 통근버스를 9번 단지 내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통근버스로 공장으로 이동하는 사람, 승용차로 출근하는 사람, 버스나 전철을 타고 학교로 통학하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로 붐빈다. 9번 단지의 상점가는 브라질계 슈퍼마켓이 2개가 있으며 한 개는 일계인 3세가 운영하는 복합형 슈퍼마켓으로 일본인들도 이용하고 있다. 또 다른 점포 한 개는 9번 단지 내 주차장에 일계인들이 만든 작은 오두막집 형태이다. 이 작은 오두막집에는 브라질 식당이 들어서 있으며 주말에는 일계인들이 모이는 집합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브라질리아' 슈퍼마켓의 맞은편에는 일계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들어서 있다. 이 교회에는 주말이면 일계인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으로부터 유입된 이민자들, 그리고 일본인 홈리스 등 약 400-500명이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

현재 일계인 집주지역인 9번 단지는 다른 단지와 마찬가지로 일본인 주민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아이치 현 운영주택은 입주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매년 10가구 정도가 입주할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단지 주변은 개발 당시부터 현재까지 산과 밭이 대부분이었던 농촌지역이었지만 현재는 택지개발이 진행되어 타운이 형성된 곳이다.

2006년 시점에서 나고야 시 9번 단지의 총인구는 9,149명으로 외국인 등록자 4,110명 중 브라질국적자는 3,838명으로 93.4%를 차지하였다. 2015

년 2월 현지조사에 의하면 9번 단지에 거주하는 일계인은 1,500~2,000내외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일본 거주 일계인의 모국 브라질과의 관계에 대한 설문조사는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질문항목의 기본적인 내용은 브라질에 가족이나 친척의 유무, 일본 친척이나 친구와의 접촉빈도, 전화접촉, 인터넷 접촉, 접촉빈도, 브라질 방문정도 등이다. 일본과 브라질 모국과의 사회적 관계의 항목은 단체나 조직 자녀 참가, 선거투표, 정당 활동, TV 및 영화시청, 신문, 인터넷사이트 방문 등이다. 또한 일계인의 브라질 모국과의 경제적 관계의 항목은 송금 및 선물을 보낸 경험, 송금 및 선물을 받은 경험의 유무 등이며 기타 모국 브라질에서의 재산보유 정도 및 향후 브라질 귀국 예정 등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IV. 일본거주 일계인의 브라질과의 사회경제적 관계 분석

1. 브라질 모국과의 관계 빈도분석

일계인의 브라질 모국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설문조사에 근거한 빈도분석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먼저 브라질에 가족과 친척이 있는지의 유무를 살펴본 결과 89.0%가 '있다'라고 응답했으며 나머지 11.0%는 '없다'라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결과는 1990년대 이후 일계인노동자들 대부분이 돈벌이(데카세기)목적으로 일본에 귀환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브라질에 친척이 '없다'고 응답한 11.0%의 경우는 가족모두가 귀환당시 일본으로 이주했거나 이민개시 25년이 경과되는 과정에서 가족모두를 브라질로부터 일본으로 초청한 경우로 풀이된다.

그러면 일계인들은 일본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친척이나 친구들과 얼마나 자주 접촉하고 있는가? 접촉빈도를 살펴본 결과, 한 달에 1-2회가 35.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월 1회가 22.0%를 차지했다. 또한 친척이나 친구를 거의 만나지 못했다는 응답이 20.0% 정도로 많았으면 대부분이 한 달에 1-2회 정도로 상호 접촉빈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계인들이 직업상 제조업의 단순노동자, 요식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직업의 특성상 야근이나 잔업 등으로 시간제약을 많이 받아 접촉 빈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 모국관계의 빈도분석 결과

질문항목		빈도(%)	질문항목		빈도(%)	
브라질 가족과 친척 유무	있음	89(89.0)	모국과 사회적 관계	구분	있음	없음
	없음	11(11.0)		브라질 단체나 조직에 자녀 참가	15(15.3)	83(84.7)
친척이나 친구 접촉 빈도	기타(0회)	20(20.0)	모국과 경제적 연계	브라질 선거참여	18(18.0)	82(82.0)
	1-5회	12(12.0)		브라질 정당활동	9(9.0)	91(91.0)
	한 달 1-2회	35(35.0)		브라질 TV, 영화시청	52(52.0)	48(48.0)
	일주일 1회	11(11.0)		브라질 신문, 인터넷	65(65.0)	35(35.0)
	매월 1회	22(22.0)		송금, 선물을 보냄	33(33.0)	67(67.0)
전화 접촉	부모	23(26.4)	브라질 재산보유도	송금, 선물을 받음	25(25.0)	75(75.0)
	형제	14(16.1)		거의 없음	52(54.2)	
	친척	31(35.6)		1억엔 이하	27(28.1)	
인터넷 접촉	친구	19(21.8)	브라질 귀예정	1억엔~5억엔	14(14.6)	
	부모	9(10.7)		5억엔~10억엔	3(3.1)	
	형제	17(20.2)		10억엔 이상	0(0.0)	
	친척	46(54.8)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음	16(16.5)	
브라질 방문빈도	친구	11(13.1)	브라질 귀예정	조금 그렇게 생각함	12(12.4)	
	기타	1(1.2)		보통 그렇게 생각함	49(50.5)	
	1주간 1회	1(1.1)		자주 그렇게 생각함	20(20.6)	
	1개월 1회	5(5.7)		항상 그렇게 생각함	0(0.0)	
	6개월 1회	1(1.1)				
1년 1회	7(8.0)					
거의 없음	74(84.1)					

그러면 일제인들은 일본에서 바쁜 직장 생활가운데 그들의 친척이나 친구와는 어떤 통신수단을 통해 접촉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전화로 접촉한 경우는 친척이나 부모가 가장 높았고, 인터넷 접촉은 친척이나 형제가 가장 높았다. 일제인 대부분은 부모에게는 전화로 형제에게는 메일로 접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일계인들은 그들의 모국인 브라질에 얼마나 자주 방문하고 있는가? 조사결과를 보면 '거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84.1%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일계인들은 브라질을 방문하는 기회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계인 대부분이 제조업의 노동자나 식품요리사로 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향에 방문할 경제적 여력이나 시간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 생각된다.

일계인의 모국과의 사회적 연계는 단체, 제도, 활동 등에 질문하였다. 일계인들은 브라질과의 단체 및 정당활동에는 상당히 소극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브라질 TV시청이나 신문구독 등은 매우 높은 비율을 보였다. 현지조사에 의하면 일계인들이 브라질의 정치현상에는 무관심하고 일계인 사회 내부의 정보활동은 대부분 일본에서 포르투갈어 방송과 포르투갈어 신문에 의존하고 있는 현상과도 일치하고 있다. 이점은 일본에 귀환한 대부분의 일계인 1-2세대들이 일본어가 서투르고 그들 간의 방송 및 신문의 소통언어가 포르투갈어인 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일계인의 모국과의 경제적 연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질문하였다. 첫째는 일계인들이 모국 브라질 친척이나 가족에게 송금 또는 선물을 보낸 경험이 있는지, 둘째는 모국 브라질에 거주하는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송금이나 선물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의 유무였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브라질로 송금이나 선물을 보내는 경우가 33.0%, 브라질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가 25.0%로 선물을 받는 경우보다 보내는 비율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일본사회의 선물문화를 생각해보면 받은 경우 반드시 보내는 경우가 예외이기 때문에 일본인의 문화적 성격이 일계인들 사이에 아직도 존재한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계인들이 일본에 온 목적이 돈벌이인 점을 감안하면 높게 나타나야 할 송금 비율이 생각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계인의 일본 정주와 정착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 경제생활도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계인의 브라질 재산보유정도를 보면 모국과의 경제적 교류는 절반 정도가 지속하고 있으며 나머지 절반은 전혀 교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일계인의 일본 입국목적이 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90%이상이 모국과의 경제적 교류경험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개인의 경제적 사정이나 직업상의 이유로 많은 일계인들이 점차 모국과의 경제적 교류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계인들의 일본 정주가 진행되면서 모국과의 사회적 관계는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경제적 관계는 더욱 소원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계인 사회가 일본어 부족에 따른 신문과 방송의

포르투갈어 사용으로 일본사회로부터 단절되는 또 다른 ‘정보 계도화’ 현상을 초래하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9)

2. 브라질 모국과의 관계 교차분석

일계인의 모국관계와 사회적 관계에 대해 다음 <표 2>는 교차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일계인의 사회적 관계 항목은 ‘브라질 단체와 조직에 자녀의 참가’, ‘브라질 선거투표’, ‘브라질 정당활동’, ‘브라질 TV 및 영화시청’, ‘브라질 신문 및 인터넷 사이트 검색’ 등 모두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차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설문항목은 일계인의 접촉빈도, 단체나 조직의 자녀참가, 정당활동, 모국 브라질 보유재산 정도, 향후 브라질 귀국예정 등이었다. 분석결과를 상세히 살펴보면 일계인의 접촉빈도에서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1주일에 1회 정도 만나는 것이 가장 많았고 모국 브라질에 재산보유정도가 적을수록 향후 브라질에 대한 귀국할 의향을 가지고 있을수록 모국 브라질과의 사회적 관계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교차분석결과를 종합하면 일계인의 사회적 관계는 1주일에 1회 정도 친척이나 친구를 만나고 브라질에 재산 보유정도가 낮고 향후 브라질 귀국의향이 강할수록 모국 브라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사회적 관계(단체활동)에 따른 모국관계 교차분석

질문항목		있다		없다		χ^2	P
가족 친척 유무	없음	0	0.0%	11	100.0%		
	있음	15	16.9%	74	83.1%		
접촉빈도	0회	0	0.0%	20	100.0%	11.841	.015
	1-5회	0	0.0%	12	100.0%		
	한 달에 1-2회	5	14.3%	30	85.7%		
	일주일간 1회	3	27.3%	8	72.7%		
	매일 1회	7	31.8%	15	68.2%		
전화접촉	부모	1	4.3%	22	95.7%	5.063	.157
	형제자매	4	28.6%	10	71.4%		
	친척	5	16.1%	26	83.9%		
	친구	5	26.3%	14	73.7%		
인터넷 접촉	부모	0	0.0%	9	100.0%	4.624	.346
	형제자매	5	29.4%	12	70.6%		
	친척	6	13.0%	40	87.0%		
	친구	2	18.2%	9	81.8%		
	기타	0	0.0%	1	100.0%		

9) 이제환 · 김연옥(2005) 「제일한인의 정보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문화』 26, pp.357-384.

브라질 방문 정도	일주일에 1회	0	0.0%	1	100.0%	6.152	.279
	1개월에 1회	0	0.0%	5	100.0%		
	6개월에 1회	1	100.0%	0	0.0%		
	1년에 1회	1	14.3%	6	85.7%		
	거의 없음	13	17.6%	61	82.4%		
단체나 조직 자녀 참가	아니요	8	9.6%	75	90.4%	9.564	.007
	예	6	40.0%	9	60.0%		
선거투표	아니요	10	12.2%	72	87.8%	2.811	.138
	예	5	27.8%	13	72.2%		
정당활동	아니요	9	9.9%	82	90.1%	20.707	.000
	예	6	66.7%	3	33.3%		
TV, 영화시 청	아니요	7	14.6%	41	85.4%	.013	1.000
	예	8	15.4%	44	84.6%		
신문, 인터넷 사이트 방문	아니요	4	11.4%	31	88.6%	.539	.566
	예	11	16.9%	54	83.1%		
송금, 선물 보냄	아니요	9	13.4%	58	86.6%	.391	.560
	예	6	18.2%	27	81.8%		
송금, 선물 받음	아니요	9	12.0%	66	88.0%	2.118	.194
	예	6	24.0%	19	76.0%		
모국 재산보 유 정도	거의 없음	6	11.5%	46	88.5%	8.242	.042
	1억엔 이하	6	22.2%	21	77.8%		
	1억엔~5억엔	1	7.1%	13	92.9%		
	5억엔~10억엔	2	66.7%	1	33.3%		
브라질 귀국 예정	전혀 그렇지 않다	1	6.3%	15	93.8%	7.733	.046
	그렇지 않다	5	41.7%	7	58.3%		
	가끔 그렇다	6	12.2%	43	87.8%		
	자주 그렇다	3	15.0%	17	85.0%		

3. 모국과의 사회경제적 관계의 차이분석

이번에는 일계인의 모국과의 사회적 경제적 차이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먼저 신뢰도 분석을 신뢰하였다. 신뢰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관계의 항목은 모두 5개 항목으로 분석결과, '브라질 단체와 조직에 자녀의 참가', '브라질 선거투표', '브라질 정당활동', '브라질 TV 및 영화시청', '브라질 신문 및 인터넷 사이트 검색' 등에 대한 Cronbach 알파는 0.521로 나타났다. 일계인의 경제적 관계의 항목은 2개 항목으로 분석결과, '브라질 가족이나 친척에게 송금 및 선물을 보낸 경험', '브라질 가족이나 친척에게 송금 및 선물을 받은 경험' 등이었으며 Cronbach 알파는 0.690으로 나타났다. 이 상과 같이 전체 항목에 대한 Cronbach 알파 값은 0.5이상으로 설문지 항목

별 평가는 비교적 일관된 내용을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표 3>은 일계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모국과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일계인의 모국과의 사회적 관계(브라질 단체 및 조직에 자녀의 참여, 선거투표, 정당 활동, TV 영화시청, 신문잡지와 인터넷 사이트 방문 등)는 연령대별, 가족경제인구별, 체류자격별, 종교별, 체류의 향별, 단체활동여부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항목에서는 항목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이분석결과, 일계인의 연령별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브라질 모국과의 사회적 관계도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계인의 가족경제인구수별 사회적 관계의 특징은 가족경제인수가 적을수록 사회적 관계가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계인의 체류자격별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살펴보면 영주자보다 정주자의 사회적 관계가 더 활발하고 결혼여부별로는 기혼자보다 미혼자, 종교별로는 불교보다 가톨릭, 일본 계속체류의 향이 없고 사회활동 참가경험이 없는 일계인일수록 모국과의 사회적 관계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브라질 국가의 종교적 성향이 가톨릭 국가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 모국과의 사회적 관계 차이분석

질문항목		N	평균	표준편차	F or T	P
성별	남성	35	1.303	0.235	-.514	.609
	여성	65	1.328	0.239		
연령대	10대a	8	1.025	0.071	4.666	.001
	20대ab	11	1.218	0.189		
	30대b	37	1.395	0.228		
	40대b	24	1.342	0.191		
	50대b	14	1.368	0.307		
	60대 이상ab	6	1.233	0.151		
교육수준	초등학교졸업	7	1.200	0.231	2.151	.081
	중등학교졸업	57	1.291	0.217		
	고등학교졸업	18	1.378	0.216		
	대학졸업	13	1.442	0.313		
	기타	4	1.200	0.163		
부모직업	사무직	16	1.363	0.285	.770	.513
	서비스직	24	1.365	0.214		
	생산직	51	1.290	0.224		
	기타	9	1.289	0.285		

연수입	200만엔 이하	19	1.274	0.284	2.41 4	.071
	200~400만엔	55	1.341	0.238		
	400~600만엔	21	1.362	0.163		
	600만엔 이상	5	1.080	0.179		
가족경제 인수	1명b	37	1.366	0.249	6.42 0	.002
	2명b	45	1.347	0.215		
	3명이상a	17	1.141	0.197		
체류자격	영주자	43	1.376	0.246	2.09 1	.039
	정주자	57	1.277	0.223		
세대구분	1.5세	25	1.224	0.194	2.25 1	.087
	2세	19	1.337	0.267		
	3세	44	1.340	0.236		
	기타	12	1.417	0.233		
자녀의 교 육적 지지	일본 내 일제브라질학교	19	1.358	0.255	1.26 2	.288
	일본학교	27	1.259	0.265		
	기타	54	1.336	0.214		
일본거주 기간	10년 이하	35	1.360	0.205	1.41 8	.247
	10~20년	50	1.279	0.247		
	20년 이상	14	1.357	0.274		
결혼여부	미혼	20	1.328	0.257	.479	.621
	기혼	69	1.307	0.242		
	이혼	11	1.382	0.166		
종교여부	천주교	44	1.305	0.230	3.63 5	.030
	불교	28	1.250	0.241		
	기타	28	1.413	0.221		
계속 체류 의향	있다b	17	1.412	0.180	4.75 9	.011
	없다ab	60	1.339	0.217		
	잘 모르겠다.a	23	1.200	0.283		
단체활동	있다	15	1.490	0.256	3.15 8	.002
	없다	85	1.289	0.221		

다음 <표 4>은 일계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모국과의 경제적 관계에 대한 차이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모국과의 경제적 관계는 일계인의 모국송금(remittance)여부문제를 분석하여 모국과의 경제적 재정적 연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차이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일계인의 경제적 관계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는 교육수준별, 부모직업별, 가족경제인구별, 체류자격별, 세대별, 종교여부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교육수준별로는 학력이 낮을수록 모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귀환 일계인들이 돈벌이를 위한 노동자로 일본에 입국하는 경향이 높고 그들의 교육수준은 초등학교나 중등학교 졸업자들이 많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다음은 일계인의 부모직업별 모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살펴보면 전문직보다는 서비스직이나 생산직이 높고 체류자격별로는

영주자보다는 정주자, 가족경제인수가 많고, 세대별로는 1세보다 3세, 종교별로는 불교보다는 가톨릭을 믿는 일제인들이 모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모국과의 경제적 관계 차이분석

질문항목		N	평균	표준 편차	F or T	P
성별	남성	35	1.300	0.387	.184	.854
	여성	65	1.285	0.405		
연령대	10대	8	1.000	0.000	1.434	.219
	20대	11	1.182	0.337		
	30대	37	1.351	0.454		
	40대	24	1.333	0.408		
	50대	14	1.250	0.325		
	60대 이상	6	1.417	0.376		
교육수준	초등학교졸업a	7	1.071	0.189	7.801	.000
	중등학교졸업a	57	1.184	0.336		
	고등학교졸업b	18	1.667	0.383		
	대학교졸업ab	13	1.423	0.449		
	기타ab	4	1.125	0.250		
부모직업	사무직b	16	1.469	0.464	4.102	.009
	서비스직ab	24	1.438	0.370		
	생산직ab	51	1.196	0.362		
	기타a	9	1.111	0.333		
연수입	200만엔 이하	19	1.263	0.348	.389	.761
	200~400만엔	55	1.327	0.422		
	400~600만엔	21	1.238	0.375		
	600만엔 이상	5	1.200	0.447		
가족경제인구	1명b	37	1.324	0.412	4.996	.009
	2명b	45	1.367	0.418		
	3명이상a	17	1.029	0.121		
체류자격	영주자	43	1.465	0.414	4.003	.000
	정주자	57	1.158	0.329		
세대구분	1.5세a	25	1.000	0.000	17.566	.000
	2세c	19	1.632	0.367		
	3세b	44	1.227	0.381		
	기타c	12	1.583	0.359		
자녀의 교육 적 지지	일본 내 일제브 라질학교	19	1.368	0.436	2.285	.107
	일본학교	27	1.389	0.424		
	기타	54	1.213	0.358		

일본거주기간	10년 이하	35	1.286	0.407	.991	.37 5
	10~20년	50	1.260	0.381		
	20년 이상	14	1.429	0.432		
결혼여부	미혼	20	1.225	0.380	1.23 2	.29 6
	기혼	69	1.283	0.415		
	이혼	11	1.455	0.270		
종교여부	천주교b	44	1.330	0.417	13.4 12	.00 0
	불교a	28	1.018	0.094		
	기타b	28	1.500	0.408		
계속체류여부	있다	17	1.412	0.404	1.83 4	.16 5
	없다	60	1.300	0.414		
	잘 모르겠다.	23	1.174	0.324		
단체활동	있다	15	1.400	0.471	1.16 7	.24 6
	없다	85	1.271	0.382		

4. 일계인의 모국과 사회경제적 관계 상관분석 및 회귀분석

다음은 일계인의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관계의 상호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결과는 다음 <표 5>에 제시하는 바와 같다. 먼저 일계인의 브라질 모국과의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관계의 평균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계인들이 브라질 모국과의 사회적 관계가 많을수록 경제적 관계도 많아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일계인의 브라질 모국과의 사회적 관계와 민족차별과의 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로 일본사회에서 민족차별을 강하게 느낄수록 모국 브라질과의 사회적 관계도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일본사회에서 일계인의 차별은 일계인들이 그들 모국 브라질에 관심을 돌리는 계기를 제공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일계인의 모국과의 사회적 관계는 민족정체성과 양의 상관관계로 모국과의 사회적 관계가 강할수록 그들의 모국 브라질인으로서 정체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일계인의 모국과의 경제적 관계와 민족정체성은 양의 상관관계로 모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강할수록 민족정체성도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일계인의 모국과의 경제적 관계와 민족차별 간의 상관분석결과는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계인들이 일본사회에서 민족차별이 강할수록 경제적 관계가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상관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일계인의 브라질 모국과의 사회적 관계와 경제적 관계는 민족정체성과는 별도로 민족차별이 강화되면 모국브라질과의 사회적 관계는 강해지고 경제적 관계는 약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모국과의 사회적 및 경제적 관계와 민족차별 및 민족정체성 평균과의 상관분석

항목구분		사 회 적 관 계	경 제 적 관 계	민 족 차 별 평 균	민 족 정 체 성 평 균
사 회 적 관 계	Pearson 상관계수	1	.326**	.203*	.528**
	유의확률 (양쪽)		.001	.043	.000
	N	100	100	100	100
경 제 적 관 계	Pearson 상관계수	.326**	1	-.157	.484**
	유의확률 (양쪽)	.001		.118	.000
	N	100	100	100	100

주) 유의수준 ** = P<0.01, * = P<0.05.

다음은 사회적 관계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종속변수를 사회적 관계로 독립변수를 민족차별과 민족정체성 평균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이 회귀분석결과 추정된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F통계량은 18.717(유의확률 0.000)으로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고, R²은 0.278로 설명력은 낮은 편이지만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회귀계수의 t검정 결과 민족정체성평균은 유의확률이 0.000 으로 유의수준 5%이하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귀모형에 포함된 독립변수 중 일계인의 모국과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민족정체성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에 영향력이 큰 정도는 민족정체성평균(0.530) > 민족차별평균(-0.005) 순으로 나타났다.

민족차별은 모국과의 사회적 관계에 음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해석하면, 일계인들이 모국 브라질에 대한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일계인 단체활동에 더욱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계인들이 일본사회에서 민족차별을 강하게 느낄수록 일계인 단체활동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는 일계인의 민족차별과 민족정체성에 따른 모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표 7〉에 제시한 바와 같이 회귀분석결과 추정된 회귀모형의 적합도에 대한 F통계량은 29.296((유의확률 0.000)으로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고, R²은 0.377로 설명력은 낮은 편이지만 회귀모형으로서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각각의 회귀계수의 t검정 결과 민족차별평균, 민족정체성평균은 유의확률이 각각 0.000으로 유의수준 5%이하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귀모형에 포함된 독립

변수 중 모국과의 경제적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민족차별평균, 민족정체성평균으로 나타났다. 모국 브라질과의 경제적 관계에 영향력이 큰 정도는 민족정체성평균(0.645) > 민족차별평균(-0.410) 순으로 나타났다.

〈표 6〉 민족차별평균 및 민족정체성평균과 사회적 관계의 회귀분석

항목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895	.076		11.818	.000
민족차별평균	-.001	.029	-.005	-.050	.960
민족정체성평균	.162	.029	.530	5.647	.000
F					18.717(<.001)
R ²					.278

주) 종속변수: 사회적 관계, 독립변수: 민족차별평균, 민족정체성평균

그러나 민족차별평균은 모국과의 경제적 관계에 음의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해석하면, 일계인들이 브라질인으로서의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브라질과의 경제적 연계에 더욱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일계인들이 일본사회에서 민족차별을 강하게 느낄수록 브라질과의 경제적 연계는 더욱 소극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상과 같은 회귀분석결과를 종합해볼 때 일계인의 모국 브라질과의 사회적 관계는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단체활동에 적극적이고 일본사회에서 민족차별을 강하게 느낄수록 단체활동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계인의 모국 브라질과의 경제적 관계는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브라질과의 경제적 연계에 적극적이고 일본사회에서 민족차별이 강할수록 모국 브라질과의 경제적 연계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민족차별평균 및 민족정체성평균과 모국과의 경제적 관계 회귀분석

항목구분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800	.118		6.781	.000
민족차별평균	-.214	.045	-.410	-4.707	.000
민족정체성평균	.331	.045	.645	7.399	.000
F					29.296(<.001)
R ²					.377

주) 종속변수: 경제적 관계, 독립변수: 민족차별평균, 민족정체성평균

V.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의 목적은 1990년대 이후 도일하여 일본 아이치 현에 거주하는 일계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민족정체성에 따른 모국인 브라질과의 사회적 경제적 관계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고찰하는데 있다. 연구방법과 분석자료는 2013년 2월부터 5월 말까지 진행된 설문조사에 근거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분석결과 일계인들의 일본 정주가 진행되면서 브라질 모국과의 사회적 관계는 점차 강화되고 있었지만 경제적 관계는 더욱 소원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일계인 사회가 일본어 부족에 따른 방송이나 신문의 포르투갈어 사용으로 일본사회와 단절되는 또 다른 ‘정보 계도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민 초기의 일시적인 돈벌이노동자에서 정착단계로 들어서면서 경제적 관계는 점차 약화되는 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차분석결과 일계인의 사회적 관계는 일계인 상호간 1주일에 1회 정도 친척이나 친구를 만나고 모국 브라질에 재산 보유정도가 낮으며 향후 브라질 귀국의향이 강할수록 모국 브라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계인들이 언젠가는 모국 브라질로 귀국할 것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일계인들일수록 일본 내에서 일계인들 간의 만남을 지속시키고 브라질에 대한 관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관분석결과 일계인의 민족정체성과 모국과의 사회적 경제적 관계는 민족정체성과는 별도로 민족차별이 강화되면 모국과의 사회적 관계는 강해지

고 반면에 경제적 관계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국 브라질에 대한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사회적 경제적 관계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회귀분석결과 일계인들은 모국 브라질과의 사회적 관계에서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단체활동에 더욱 적극적이고 일본사회에서 민족차별을 느낄수록 단체활동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계인의 모국과의 경제적 관계에서는 민족정체성이 강할수록 브라질과의 경제적 관계 강화에 더욱 적극적이고 일본사회에서 민족차별이 강할수록 모국 브라질과의 경제적 관계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일계인의 일본생활은 그들의 민족정체성의 기반인 모국 브라질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일계인들이 일본에서의 생활이 어려워질수록 일본생활을 회고하게 되고 일본에서 생존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다양한 변화와 개혁을 시도하게 되며 브라질과의 관계개선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 일본에서 일계인들은 법적으로 '일본'과의 관계 때문에 일본인으로 우대되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일본인과의 차이 때문에 일본인이 아닌 '외국인'으로 인식되어 온 측면이 존재한다. 따라서 일계인들은 자기 정체성으로서 일계인 혹은 일본인이라는 양자의 선택 결과에 따라 모국 브라질과의 사회경제적 관계도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일계인의 민족차별과 민족정체성에 따른 브라질 모국과의 사회적 경제적 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연구결과 일계인의 민족정체성에 따른 거주형태별, 거주지향별 생활전략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중국조선족 동포의 생활전략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에서도 1990년대 이후 외국인의 급증으로 다문화사회를 표방하기 시작했지만 국내 거주 중국조선족 동포들의 경우 국적과 민족적 성향이 일계인들과 같은 맥락에서 그들이 국내에서 차별과 '다름'을 경험할수록 중국과의 관계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고 중국과의 사회경제적 관계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향후 중국조선족은 물론이고 다문화사회 소수민족을 위한 한국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배려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参考文献】

- 임성모(2008) 「근대 일본의 국내식민과 해외이민」 『동학사학연구』 제103집.
- 송석원(2009) 「일본정부의 일계인(日系人)정책-JICA의 해외일계인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민족연구』 .
- 이제환 · 김연옥(2005) 「재일한인의 정보행태에 관한 연구」 『한국민족문화』 26.
- 임채완 · 임영언 · 박구용(2013) 『일계인디아스포라: 초국적 이주루트와 글로벌네트워크』 북코리아.
- 임영언 · 최석신(2014) 「재한일본인의 네트워크 특징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日本文化研究』 第50輯.
- 임영언 · 임은규(2014) 「일본의 이민정책과 일계인의 모국귀환정책 연구-재외방인 우수인재 유치정책을 중심으로-」 『日語日文學』 第63輯.
- 임영언 · 한종완(2014) 「일계인의 일본 정착과정에서 나타난 차별의식과 차별유형에 관한 연구」 『日本文化研究』 第52輯.
- 임영언 · 최석신(2015) 「일계인(日系人)의 민족차별경험과 민족정체성 형성에 관한 연구」 『민족연구』 제61집.
- 黒田陽子(2007) 「フィールドワークによる日系人の生活戦略分析—人間関係と言語習得から見る支援の一つの可能性—」 『生態人類學會』 No.14.
- 梶田孝道 · 丹野清人 · 樋口直人(2005) 『顔の見えない定住化—日系ブラジル人と國家 · 市場 · 移民ネットワーク』 名古屋大學出版會.
- 財団法人海外日系教會, <http://jadesas.or.jp>(검색일: 2015년 5월 21일).
- 關口知子(2003) 『在日日系ブラジル人のこどもたち』 明石書店.
- 前山隆(2001) 『異文化接触とアイデンティティ』 お茶の水書房.
- 吉田忠雄(2006) 『南米日系移民の軌跡』 人間の科學社.

要 旨

本研究の目的は1990年代以降日本愛知県に住んでいる日系人を対象に彼らの母国であるブラジルとの社会的経済的関係を調べることである。研究の方法と分析の資料は日本名古屋地域9番だ地に住んでいる日系人を対象に質問調査を行い、回収された100部のデータを活用した。分析の結果は次の通りである。

第一に、頻度分析の結果、日系人の日本定住が進めば進むほどブラジル母国との関係は強化されたが、経済的な関係は遠くなる傾向があった。

第二に、分散分析の結果、日系人の社会的関係は日系人同士間で1週間1回ほど親戚や友だちに会い、ブラジルに財産保有程度は低かった。日系人たちは今後ブラジルへ帰国する意向が強いほど母国ブラジルにに対する社会的関心も高い傾向があった。

第三に、相関分析の結果、日系人の母国との社会的経済的関係は民族アイデンティティとは関係なく、彼らに対する民族差別が強化されれば母国との社会的関係は強化される傾向があった。

第四に、回帰分析の結果、日系人の母国ブラジルとの社会的関係で民族アイデンティティと民族差別が強いほど団体活動に積極的であった。

結論的に、分析結果をみると日系人の母国ブラジルとの関係は民族アイデンティティが強いほど経済的関係は積極的で民族差別が強いほど社会的な関係が活発になる傾向があった。このような日系人の生存戦略は韓国多文化社会の外国人生存戦略にそのまま適用できると考えられる。

キーワード：日系人、社会的関係、経済的関係、民族差別、民族アイデンティティ、多文化社会

투 고 일 : 2015. 5. 31
심 사 일 : 2015. 6. 13
게재확정일 : 2015. 7. 4